

10월 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미 증시, 실적·지표 `굿 (Good)`..다우 0.6%↑	뉴욕증시가 8일(현지시간) 알코아의 실적호재와 실업수당 지표 개선에 힘입어 강세로 상승세로 마감했음. 달러화 약세로 상품주가 견조했고, 9월 판매실적이 개선된 소매업종에도 매수세가 몰렸음. 다우 지수는 61.29포인트(0.63%) 상승한 9786.87을, 나스닥 지수는 13.60포인트(0.64%) 오른 2123.93을, S&P 500 지수는 7.90포인트(0.75%) 상승한 1065.48을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개장초부터 오름세를 보였음. 다우 지수 종목중 처음으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알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사한 점이 투자심리를 크게 북돋웠음. 개장전에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52만1000건을 기록하며 9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진 점도 호재가 됐음. 개장후 발표된 8월 도매재고는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도매판매 증가세가 재고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로 도매재고 역시 호재로 인식됐음. 이처럼 경기 회복 시그널이 강화된 가운데 미 달러화까지 약세를 보이자, 금속 및 원유 가격이 상승했고 원자재 상품주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음. 또 소매점들의 9월 판매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 힘입어 소매업종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음.
미 주간 실업수당 `9개월래 최저`	경제지표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줬음. 미 노동부가 개장전에 발표한 지난주(3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55만4000건(수정치)보다 3만3000건 감소한 52만1000건을 기록했음. 이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서 벗어나면서 고용시장 악화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금년 1월 이후 가장 적었고, 54만건을 예상한 시장의 전망치보다 적은 숫자였음.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살피는데 도움을 주는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전주 54만8750건에서 53만9750건으로 줄었음. 1주 이상 지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9월26일 마감기준)는 전주대비 7만2000건 감소해 금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604만명을 기록했음.
미 8월 도매재고 12개월째 감소..판매증가 영향	미 상무부가 장출발후 발표한 8월 도매재고는 전월대비 1.3% 감소,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음. 반면 도매판매는 최근 1년여만에 가장 높은 1%의 증가세를 기록했음. 이는 판매증가가 도매재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현재 도매재고 규모는 3812억달러로 2006년 7월 이후 최저 규모임. 이에 따라 향후 소비수요가 증가할 경우 도매기업의 상품주문이 개선될 여지도 더욱 커졌다는 분석임.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약달러를 디딤돌로 다시 70달러대	국제유가가 8일(현지시간) 반등세를 보이며 하루만에 배럴당 70달러대를 회복했음. 경기지표 개선과 미 달러화 약세가 영향을 미쳤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12달러(2.12%) 상승한 71.69달러로 마감했음. 미국 달러화가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해 14개월래 최저치로 밀린 점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 매수세를 부추겼음. 필 플린 PFG베스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떨어지려 해도 미 달러화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며 장세 분위기를 전했음. 그는 다만, 달러화가 반등할 경우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음. 다우종목인 알코아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점도 경기 및 원유수요의 회복 기대감을 자극했음.
한국은행은 뭐라고 말할까	밤사이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재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9개월래 최저로 떨어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3분기 어닝시즌의 막을 올린 알코아의 실적 호조였음. 경기에 대한 불안이 사그라들고,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가 부상하면서 투자심리가 활짝 피어났음. 수급과 심리 모두에서 지극히 취약해진 우리 증시 역시 경기와 기업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음. 다소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에 이상이 없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직 하기 때문임. 이번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유난히 관심이 쏠리는 것도 같은 이유임. 당국이 금리를 올려도 실물경제 개선에 타격이 없을 만큼 탄탄한 바탕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경기 진행 방향과 속도는 믿을 만 한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임. 금리인상으로 환율 하락 우려가 부각되며 수출경쟁력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다면 올 상반기와 같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는 기대하기 힘들.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반대로 당국의 긍정적 경기관과 금리인상 의지가 한국경제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된다면 외국인의 매수기조 복귀를 기대할 만함. 환율 하락에 대한 전망이 추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되는 것도 나쁘지 않음.
버냉키, 경기부양 노력 필요...회복 정착때 긴축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경기 회복을 위한 연준의 광범위한 부양노력이 한동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음. 그는 8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조화로운 정책이 한동안 보장돼야 할 듯 하다"면서도 "그러나 조만간 경제 회복이 정착될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Theme Analysis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